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왕국의 발전으로서 번식시킴

(금요일 — 오전 2부 집회)

메시지 5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살아 있는 돌들을 산출하시는  
돌-구주이신 그리스도

성경: 행 4:10-12, 시 118:22, 24, 뱀전 2:4-8

- I. 사도행전 4장 10절부터 12절까지에서 우리는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께서 건축자들인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 멸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하나님에 의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건축물의 모퉁이 돌이 되셨으며, 오직 그분 안에만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본다.
- II. 시편 118편은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말한다.
- A.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리 돌이 되었나니” — 시 118:22.
1. 주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이 절을 인용하시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돌이심을 지적하고 계셨다.
  2. 그리스도는 신약 시대에서 교회 건축을 위한 모퉁이 돌이시다 — 마 16:18.
  3.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베드로는 주님께서 하나님에 의해 존귀하게 되신 보배로운 돌이심을 알게 되었다 — 뱀전 2:4, 6.
- B. 주 예수님은 부활의 날에 하나님에 의해 모퉁이 돌이 되셨다 — 시 118:24.
1.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적인 건축물을 위한 모퉁이 돌이 되도록 영원 과거에 하나님께 선택받으셨다 — 뱀전 1:20, 2:4.
  2. 건축자들인 유대 지도자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 정도까지 그분을 극도로 배척했다 — 마 21:38-42.
  3.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그분을 모퉁이 돌로 두 번째로 선택하심으로써, 영원 과거에 그분을 처음 선택하신 것을 확증하셨다 — 행 4:10-11.
  4.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후에 그분을 하늘들로 높이셨다 — 눅 24:51, 행 1:9.
    - a. 그리스도께서 하늘들에 있는 시온으로 승천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모퉁이 돌로 선택하신 것을 더한층 확증해 준다 — 계 14:1, 사 28:16, 뱀전 2:6.
    - b.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은 둘 다 그분께서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모퉁이의 머리 돌로 선택되신 분이신 것을 증명하고 확증해 준다 — 시 118:22, 행 4:11.
- C. 모든 것을 포함한 돌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를 건축하기 위한 하나님의 움직임의 중심이시다 — 마 21:42, 44, 스펴 3:9, 엡 2:19-22.
1. 그리스도의 모든 어떠하심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과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시는 모든 것은 그분께서 모퉁이 돌이시라는 사실에 기인한다.
  2. 바로 그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심으로써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 있었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분과 함께 살아나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고 그분과 함께 하

늘들의 영역에 앓을 수 있었으며,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석으로 변화시키시고 우주 안의 하나님의 유일한 성전인 하나님의 처소로 우리를 함께 건축하실 수 있었다 — 갈 2:20, 엡 2:5-6, 20-22.

### III. 사도행전 4장 10절부터 12절까지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돌-구주로 선포하였다.

- A. 베드로가 시편 118편을 인용한 것은 그가 그리스도를 죄인들의 구원을 위한 구주로뿐 아니라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돌로 전파했다는 것을 가리킨다 — 행 4:11-12.
1. 죄인들에게 유일한 구원이신 그리스도는 바로 이러한 분이시다.
  2. 죄인들이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건축물에 참여하기 위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늘 아래 그분의 유일한 이름, 곧 유대 지도자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시고 높이신 이름 안에서이다 — 행 4:12, 빌 2:9-10, 마 1:21, 뵤전 2:5.
- B.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분, 의로우신 분, 생명의 창시자, 종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돌이시기도 하다.
1. 이 돌은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 행 4:11-12.
  2. 그리스도는 돌-구주이시다. 돌-구주이신 그분은 견고하시고 강하시며 의뢰할 만한 분이시다.
  3.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만 구원받을 수 있으며, 이 예수님은 돌이시다. 이것은 우리에게 돌-구주가 계심을 의미한다.
- C.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육체 되심 안에서 오시어, 하나님의 우주적인 처소를 건축하기 위한 돌이 되셨다 — 요 1:1, 14, 마 21:42.
1. 처음에 그리스도는 일반적인 돌이셨고, 유대 지도자들은 그분을 죽임으로써 배척했다.
  2.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분을 살리시고 그분을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심으로써 그분을 존귀하게 하셨다. 모퉁이 돌은 건축물의 벽들을 연결하는 뛰어난 돌이다.
  3. 하나님의 처소의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는 유대인 믿는 이들이라는 벽과 이방인 믿는 이들이라는 벽을 연결하신다 — 엡 2:22.

### IV. 돌-구주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적인 집인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살아 있는 돌들을 산출하고 계신다 — 뵤전 2:4-8.

- A.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믿는 이들인 우리를 위해 번식하는 돌과 건축하는 돌이 되신다 — 뵤전 2:4-5.
1. 먼저 우리는 그분의 번식이 되었고, 이제 그분은 우리 모두를 함께 하나님의 거처로 건축하고 계신다 — 뵤전 2:5.
  2.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돌-구주이신 그리스도는 건축자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재료이시다 — 마 16:18, 뵤전 2:4-5.
- B. 요한복음 1장 42절과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 베드로는 그리스도와 믿는 이들이 모두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살아 있는 돌들이라는 계시를 받았으며, 결국 하나님의 목표가 살아 있는 돌들로 건축된 영적인 집을 얻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 뵤전 2:4-8.
1. 베드로전서 2장 4절은 살아 있는 돌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말한다.
    - a. 살아 있는 돌은 생명을 소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생명 안에서 자라는 돌이다. 이 돌은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그리스도이다.

- b.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는 씨이시며,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그리스도는 돌이시다.
  - c. 우리는 생명의 씨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자라야 한다. 이럴 때 우리는 그분을 우리 안에 살고 계신 돌로서 체험하게 된다 — 벰전 1:23, 2:2, 4.
  - d. 이러한 방식으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분의 신성한 본성으로 변화된 살아 있는 돌들이 되게 하시며, 그 결과 우리는 기초 돌과 모퉁이 돌 모두이신 그분 위에서 다른 이들과 함께 영적인 집으로 건축될 수 있다 — 고전 3:10, 엡 2:20.
2. 믿는 이들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 있는 돌들이 되어 영적인 집으로 건축된다 — 벰전 2:5.
- a. 우리는 거듭남과 변화를 통해 살아 있는 돌들이 된다 — 요 3:6, 고후 3:18.
  - b. 우리는 진흙으로 창조되었지만(롬 9:21), 거듭났을 때 생명의 씨를 받았고, 이 씨는 우리 안에서 성장함으로써 우리를 살아 있는 돌들로 변화시킨다 — 벰전 2:2, 5.
3. 우리는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어 가고 있는데, 이 집이 하나님의 건축물이다 — 엡 2:21-22.
- a. 결국 이 건축물은 돌-성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이다 — 계 21:2.
  - b. 우리는 새 예루살렘 안으로 건축될 보석들이 되어 가고 있다.
  - c. 이러한 과정은 우리가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살아 있는 돌이신 그리스도를 매일 접촉하고 변화되는 동안에 일어난다 — 벰전 2:4-5, 롬 12:2.

##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돌이신 그리스도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능력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서지 못하는 사람을 치료했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들은 치료자이신 그리스도에 관해 조금 더 말할 기회를 붙잡았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4장은 사실상 베드로가 치료자를 제시한 것의 연속이었다. 3장에서 베드로는 이 치료자를 여섯 방면으로, 곧 하나님의 종, 거룩하신 분, 의로우신 분, 생명의 창시자, 신언자, 땅의 모든 족속들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는 씨로 제시했다. 치료자에 대한 이 모든 방면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4장에서 베드로는 치료자의 또 한 가지 방면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특별히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돌이신 그리스도를 제시했다.

### 돌-구주

사도행전 4장 12절은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하늘 아래 사람들 가운데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다. 이 절은 복음을 전파할 때 자주 사용된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절이 11절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을 들어 본 적이 있는가? 11절은 이렇게 말한다. “이분은 건축자들인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졌지만, 모퉁이의 머리 돌이 되셨습니다.” 이 절들은 11절의 돌이 바로 구주라는 것을 가리킨다. 건축자들이 멸시한 돌은 모퉁이 돌이 되었으며, 다른 어떤 이름에 의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예수님이 돌이시다. 이는 우리가 돌-구주를 가졌다는 뜻이다. 사복음서에서 마태복음에는 왕-구주, 마가복음에는 노예-구주, 누가복음에는 사람-구주, 요한복음에는 하나님-구주가 있다. 이제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돌-구주를 본다. 우리의 구주는 왕과 노예와 사람과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돌이시기도 하다.

사도행전 4장 7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무슨 능력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서지 못하는 그 사람을 치료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러자 10절에서 베드로는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아셔야 합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 곧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이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건강하게 되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여기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 말했다. 그런 뒤에 그는 11절에서 이 이름은 건축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긴 돌이라고 말했다. 비록 베드로는 교육을 받지 못했고 배운 것이 없었지만(행 4:1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건축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긴 돌이라고 선포할 수 있었다. 이 돌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긴 건축자들은 누구였는가? 이 건축자들은 바로 유대의 지도자들이었다.

###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의 건축

사도행전을 읽을 때에 우리는 여전히 전통적인 신학의 영향 아래에 있을지도 모른다. 이 영향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을 위한 것이므로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만을 깨달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계속 더 전진하여 돌과 건축자들의 의미를 살펴보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우리는 이 건축자들이 무엇을 건축하고 있었는지를 물어보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무엇을 건축하고 있었는가? 어떤 이들은 그들이 유대교를, 즉 하나의 종교를 건축하고 있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유대교 혹은 어떤 종류의 종교를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다.

유대 지도자들 곧 건축자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몰랐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많은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우리는 이미 수백 개가 넘는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를 출간했고 그 메시지들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많은 것들을 다루었다. 우리가 지적했듯이 하나님의 경륜은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거처를 건축하는 것이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구한 처소가 아니다. 오히려 하늘은 하나님의 임시 거처이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영원히 머무시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계시하고 있다.

###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의 경륜을 갖고 계심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다. 하나님의 경륜은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계획이요 안배요 행정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그분의 영원한 처소를 건축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는 그분 자신을 사람과 연합시키신 것, 곧 하나님과 인성의 연합이다. 하늘도 땅도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그분의 처소가 아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거처가 될 자격이 없다. 비록 구약에서는 이것에 관해 거의 볼 수 없지만, 신약에서 특히 요한복음에서 완전히 계시되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라고 말한다. 이 말씀은 육체 되심을 언급한다. 즉 하나님이신 말씀(1:1)이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이 절에서 ‘장막을 치다’라는 말은 그 의미가 매우 풍성하다. 그것은 육체가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 시라는 것을 상징한다. 이 연합은 하나님의 장막으로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곳이다. 더욱이 이 장막 안에서 하나님의 선민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그분과 함께 머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우리는 육체 되심을 통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된 것을 본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주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서로 거처를 정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우리는 아들과 아버지께서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셔서 거처를 그 사람과 함께하신다는 것을 본다.

그런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주님은 계속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여러분 안에 거하겠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그분이 우리가 거하기 위한 우리의 거처가 되시려고 한다는 것과 우리가 그분의 거처가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셨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의 거처가 될 수 있도록 너희는 나의 거처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상호 거처를 위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을 본다. 당신은 이것에 관한 것을 들어 본 적이 있는가? 전통적인 신학의 가르침에는 그러한 관념이 없다.

### 부활 안에서의 건축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주 예수님은 “여러분이 이 성전을 허십시오. 그러면 내가 삼 일 만에 다시 세울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2장 21절은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여기서 주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하다. “너희 유대 지도자들은 마땅히 건축자들이어야 한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삼 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너희가 파괴한 것을 나는 부활 안에서 건축할 것이다.” 부활 안에서의 이 건축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포함할 뿐 아니라 또한 그분을 믿는 모든 이들도 포함한다. 궁극적으로 그분과 모든 믿는 이들이 함께 하나님의 처소로 건축될 것인데, 신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집인 교회라고 부른다(딤후 3:15).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 그분 자신과 그분의 선민을 위한 영원한 처소를 건축하는 것임을 볼 수 있다. 이 처소는 사실상 그분의 선민과 하나님과의 연합이다.

### 상호 거처

하나님을 우리의 처소로 삼는다는 사상은 구약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명기 33장 27절은 “옛적부터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대의 처소이시며”라고 말한다. 시편 90편 1절에서 모세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라고 말한다. 이 절들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소이심을 명백히 볼 수 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인 우리가 그분의 처소라고 말하는 절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신약은 하나의 우주적인 건축물이 있다는 것과 이 건축물은 하나님과 그분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상호 거처라는 것을 분명하게 계시한다. 사실상 이 처소는 우리의 거처이신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거처인 우리이다. 이 놀라운 거처야말로 하나님의 건축물이다.

하나님은 이 처소를 건축하시기 위해 모세, 왕들, 신언자들, 모든 유대 지도자들을 사용하시고자 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4장 11절의 건축자들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처소의 건축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사도행전 라이프 스타디, 15장, 127-131쪽)*

### 하나님의 처소의 모퉁이 돌

하나님은 그분의 우주적인 처소의 건축을 위한 돌이 되시려고 육체 되심 안에서 오셨지만, 마땅히 건축자들이 되어야 했을 유대 지도자들은 이 돌을 멸시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을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 유대 지도자들이 그분을 배척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그분을 사용하셨다. 먼저 그분은 단지 일반적인 하나의 돌이셨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에게 배척받은 후에, 하나님은 그분을 부활 안에서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 처음에 그분은 하나의 일반적인 돌이셨다. 유대 지도자들은 그분을 죽임으로써 그분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하나의 특별한 돌 곧 건축물의 벽들을 연결하는 매우 탁월한 돌인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심으로 그분을 존귀하게 하셨다. 지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처소의 모퉁이 돌이시다.

### 돌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베드로의 인식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는 안드레가 그의 형제 시몬 베드로를 주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것을 본다. “예

수님께서 그를 주의 깊게 보시며 말씀하셨다. ‘그대는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그대가 게바라 불릴 것입니다.’(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이다.)”(42절) 나중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면 여러분은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마 16:15)라고 질문하셨다. 베드로가 앞장서서 이렇게 선포하였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16절) 주님은 베드로의 말에 반응하여 “또 내가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베드로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18절)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베드로라는 이름은 돌이란 뜻이다. 돌은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재료이다. 주 예수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너는 베드로 즉 하나의 돌이다. 나는 돌들을 가지고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다.”

비록 당시에는 베드로가 이해한 것 같지 않지만, 의심할 여지없이 주님의 말씀은 그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주었음이 분명하다. 생명 주시는 영이 그의 안으로 불어 넣어진 후, 또한 경륜의 영이 그의 위에 불어온 후 베드로는 그 영의 사람, 즉 안에는 본질의 영을 갖고 있고 위에는 경륜의 영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그러한 사람으로서 베드로는 확실히 돌이라는 것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베드로는 스스로 이렇게 말했는지도 모른다.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분이 내게 새 이름, 곧 돌을 뜻하는 이름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생각난다. 나중에 그분은 나를 ‘베드로’라고 부르셨고, 반석 위에 그분의 교회를 건축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이제야 나는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셨는지 이해하겠다.”

이런 이해를 가졌으므로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에서 건축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지만 모퉁이 돌이 되신 주 예수님을 제시할 수 있었다. 세월이 흐른 후 연로해졌을 때 베드로는 그의 첫 서신서를 썼는데,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살아 있는 돌이신 주님과 살아 있는 돌들인 믿는 이들에 대해 말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선택받으신, 살아 있는 보배로운 돌이신 그분께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살아 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어”(벧전 2:4-5 상). 사도행전 3장과 4장에 따르면, 베드로는 치료자이신 분을 하나님의 중, 거룩하신 분, 의로우신 분, 생명의 창시자, 신언자,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씨로 알았을 뿐 아니라, 또한 그분이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돌이신 것도 알았다.

나는 역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돌이시라는 것을 말씀으로부터 가르쳤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믿지 않는다. 그분은 중, 거룩하신 분, 의로우신 분, 생명의 창시자, 신언자, 씨이실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돌이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따르면, 이 돌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은 ‘돌-구주’이시다. 돌-구주이신 그분은 견고하시고 강하시며 의뢰할 만한 분이시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고 그분 위에 설 수 있다. 이 돌은 반석이시고, 기초 돌이시며, 모퉁이 돌이시다. 스가랴서 4장 7절에서 그분은 심지어 꼭대기 돌이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재료이시다. 하나님의 건축물은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음

성경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건축물에서 모퉁이 돌과 기초 돌이시며, 머리 돌과 심지어 모든 돌이 되신다고 말하는 것을 어떤 이들이 들을 때, 그들은 우리가 범신론을 가르친다고 비난할지도 모른다. 이것은 거짓된 비난이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양식이시고, 공기이시고, 물이시고, 빛이시고, 문이시고, 옷이시고, 거처이시라고 말하지만, 확실히 이것은 범신론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양식과 음료가 되실 자격이 없으신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공기, 의복, 문, 거처 등이 되실 자격이 없으신가? 그분은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기초 돌, 모퉁이 돌, 머리 돌, 모든 돌이 아니신가? 확실히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이 되시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셨다. 그러나 오늘날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의 이런 자격을 낮추어, 성경으로부터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포함하신다는 것, 즉 그분은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신다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범신론자들이라고 거짓으로 고발한다. 신약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고 또 모든 것 안에 계신다는 것(골 3:11)과 우리는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신 이분의 충만(엡 1:23)임을 계시한다. 우리가 그분을 표현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니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바로 그리스도, 곧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서이다. 당신은 그분의 이름이 왜 그리 능력이 있는지 아는가? 그분은 모든 것을 포함한 놀라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은 능력이 충만하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으며, 그분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이시다.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으로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사람, 아버지, 아들, 그 영, 반석, 기초 돌, 모퉁이 돌, 머리 돌, 문, 우리의 양식, 우리의 음료, 우리의 옷, 우리의 생명,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기능, 우리의 행함, 우리의 생활, 우리의 말들, 우리의 호흡, 우리의 시력, 우리의 청력이다. 오,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어떠함의 모든 것을 다 나열하거란 불가능하다!

어떤 이들은 전통의 영향 때문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표현하기 위한 새 용어들을 사용해서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교회의 교부들과 종교 회의들과 전통적인 가르침들에서 사용된 용어들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큰 제한을 두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포함하셨다는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이런 제한을 거절하고 새 용어들을 사용해야 한다. 우리는 전통적인 신학을 신뢰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제한하며 심지어 오도(誤導)하기까지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방면들을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돌이시라는 방면을 지니고 계신다. 할렐루야! 건축하는 이 돌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자!

###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 세계 치는 돌, 번식하는 돌, 건축하는 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돌이실 뿐 아니라 또한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 세계 치는 돌이 시기도 하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 세계 치는 돌이신 그분 자신에 관해서 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 하셨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날 것이며, 이 돌이 누구 위에든지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겨같이 흩을 것입니다.”(마 21:44) 그리스도는 믿는 이들에게 신뢰할 만한 기초 돌 이시다(사 28:16). 그러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그분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시고(사 8:14-15, 롬 9:32-33), 민족들에게는 세계 치는 돌이 되실 것이다. 다니엘서 2장 34절과 35절에 따르면, 돌이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때에 민족들을 세계 치실 것이다.

믿는 이들인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아니고 세계 치는 돌도 아니시다. 그분은 건축하는 돌이시며, 심지어 번식하는 돌이시다. 우리에게 그분은 건축하는 돌이 되셨다. 먼저 우리는 그분의 번식이 되었고, 지금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건축하고 계신다. 그분은 건축자이신 동시에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재료이시다. 그분은 돌-구주이시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를 건축하고 계신다. 그분은 유대인들과 민족들에게 각각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 세계 치는 돌이 되신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분은 번식하는 돌이시며 건축하는 돌이시다.

### 흙으로 된 사람에서 돌-성(城)으로

성경에서 돌은 주요 항목이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2:7). 그러므로 첫 사람은 흙-사람이었다. 그런 뒤에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사람이 되셨는데, 이 사람은 돌-사람이셨다. 성경의 끝인 요한계시록에는 돌-성(城), 즉 돌로 건축된 성이 나온다. 그러므로 성경은 흙-사람으로 시작해서 돌-사람으로 계속되며 돌-성으로 최종 완결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사도행전 라이프 스타디, 16장, 132-137쪽)*